

주체 104
(2015)년 11월
14일
토요일
음력 10월 3일

6. 15 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고 리을설원수의 장의식 엄숙히 거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장의식에 참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리을설원수의 장의식이 11일 평양에서 국장으로 엄숙히 거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장의식에 참가하시였다.

고인의 영구가 안치된 중앙로동자회관에는 조기가 드리워져 있었다.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 군기들이 세워져 있었으며 명예위병들이 고인의 영구 옆에 서 있었다.

령구를 발인하는 의식이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영구발인에 앞서 고 리을설원수를 추모하여 영전에 묵상하시고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였다.

고인의 유가족들, 국가장의위원회 성원들이 고 리을설원수를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추도곡이 장중하게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고인의 유가족들과 함께 리을설원수의 영구를 앞세우고 나오시였다.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의장대가 『영구에 들어 총!』을 하였다.

고인의 영구를 실은 장갑차는 모터찌를의 호위를 받으며 대성산혁명사릉을



향하여 떠났다.

령구차가 지나는 평양의 거리들에는 리을설원수와 영결하기 위하여 모여온 수만명의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이 서있었다.

그들은 일편단심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아들여 선군혁명위업수행에 특출한 공적을 쌓아올린 귀중한 혁명가인 리을설원수와 영결하는 크나큰 슬픔에 잠겨있었다.

령구를 실은 장갑차는 대성산혁명사릉에 도착하였다.

고 리을설원수의 반신상이 세워져 있는 대성산혁명사릉에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의장대가 정렬해 있었다.

영결식이 엄숙히 거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영결식에 참가하시였다.

국가장의위원회 성원들, 고인의 유가족들, 당, 무력, 정권기관, 내각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애국가가 주악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

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황병서 조선인민군 차수가 애도사를 하였다.

추도곡이 주악되고 조총이 발사되는 가운데 고인의 유해가 안치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그렇게도 념원하던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승리와 조국통일의 날을 보지 못한채 애석하게도 우리결을 떠난 리을설원수에 대한 북받치는 애도의 정을 안으시고 군대의 책임임군들, 유가족들과 함께 고인의 유해에 흙을 얹으시였다.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존함을 모신 화환이 리을설원수의 반신상에 진정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받아들여 열혈의 충정을 다하여온 고 리을설원수를 추모하여 묵상하시였다.

국가장의위원회 성원들, 고인의 유가족들, 당, 무력, 정권기관, 내각 일군들이 고인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분사기자



인민이 안기는 자애로운 어버이

서방세계에서는 지금 이 시각에도 조선에 대해 갖은 비방을 해대고 있다. 열토당토않는 『인권』나발을 불어대며 날조국까지 연출하여 진실인 양 류포시켜보려 안달복달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국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모략선전놀음에 쓴웃음을 짓지 않을수 없다. 사실파는 너무도 다른 영터리보도, 외곡보도이기때문이다.

나역시 지난 시기에는 북에 대해 잘못 알아왔다. 그러나 여러차례 북을 방문하면서 인식을 새롭게 가지게 되었고 점차 북의 현실에 끌려들음을 어쩔 수 없다.

북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는 확연히 다른 자기만의 고유한 특징을 많이 가진 흥미있는 나라였다.

그중에서도 내가 제일 큰 감명을 받은것은 김정은령도자의 품에 인민들이 저저마다 안기여드는 모습이였다.

령도자가 가는 곳마다에서 사람들이 그분의 품에 안겨들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을 동동 구르며 눈물속에 만세를 부르는 광경은 세상 어디서도 볼수 없는 가슴뜨거운 화폭이였다. 이것은 연출 할수도 없고 인간들의 진실한 마음, 따르는 마음과 정이 없이는 펼쳐질수 없는 광경이였다.

인민들을 넓은 품에 안아주며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군 하시는 김정은령도자.

그 감동적인 모습들을 보면 서 내 마음속에 갈마든 생각은 흡사 어머니의 옷자락에 자식들이 안기는 모습과 너무도 방불하다는것이다.

자식을 낳아 키워본 어머니의 본능적인 감각이라 할가 아들은 늘 어머니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어머니의 품에 때없이 파고들어 안긴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사랑이나 정이 제일이기때문이다.

인간생활의 리치도 이와 다를바 없다고 본다.

내가 체험한데 의하면 북의 인민들 그 누구를 만나봐도 김정은령도자를 우리 원수님이라 정답게 호칭했고 아이들은 우리 아버지라고 각근히 존대하여 부르는것이였다. 북



환호하는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손을 저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에서 김정은령도자는 국가의 형수이 시기 전에 인민들의 친아버지로 되고있다.

사람은 정에 살고 정에 죽는다고 했다.

김정은령도자께서 인민에게 부어주시는 사랑과 정은 혈연으로 맺어진 혈육들사이의 정과 사랑을 훨씬 초월한 가장 뜨겁고 강렬한 사랑이다.

내가 북에 체류하고있던 때의 일이다.

당시 북의 라선명에는 폭우와 큰물로 인하여 혹심한 재해를 당하고 엄청난 인적물적손실을 당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직접 라선시피해복구전투를 현지에서 지도하면서 라선시수재민들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다고, 직접 피해복구현장을 돌아보아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찾아왔다고 하시면서 전화위복의 기적을 창조하는데 대하여 세심히 가르쳐 주시였다.

그날 그분께서는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사는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이라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남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들을

모시듯 더 잘 받들어나가고 말씀하시였다고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듯 인민들을 더 잘 받들어나가자!

이 한마디 말씀만 놓고도 그분의 인민존중, 인민사랑이 과연 어떤것인지 잘 알수 있다고 본다.

북에서는 령도자가 인민들과 사소한 간격도 두지 않으신다.

늘 인민을 찾아가시고 인민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시고 인민들과 어깨걸고 팔을 끼고 사진을 찍으신다.

인민에 대한 그분의 좌우명도 의미심장하다.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라!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자! 그 어느 나라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인민사랑의 구호라고 하겠다.

언제인가 그분께서는 원아들과 보양생들, 과학자가족들이 물고기를 받아안고 기뻐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보시고 정말 이런 멋에, 이렇게 순간에 속이 한번씩 풍물해오는 행복에 도취되어보려고 힘들어도

웃으며 투쟁속에 사는것 같다 고,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바탕으로 힘과 용기를 모아 백배하여 일들을 더 잘해나가자고 말씀하시였다고 한다.

이번에 새로 일떠선 쭉섬의 과학기술전당과 대동강기슭의 미래과학자거리도 그분께서 인민에게 주시는 최상최대의 선물이다.

세계의 그 어느 나라치고 고아들과 부양자없는 로인들은 사회의 『소외계층』, 『시끄러운 존재』이다. 그러나 북에

는 그런 고아들과 로인들이 세상 그 어디서도 찾아볼수 없는 궁전에서 마음껏 행복을 향유하고있었다.

19세기 영국의 이름난 작가였던 찰즈 디肯즈는 고아의 운명을 보여주는 『올리버 트위스트의 모험』이라는 장편소설을 썼다.

방랑속에서 천대와 멸시를 받고 도적단에 끌려들어가 많은 불행도 겪으며 부상을 당한 불쌍한 고아인 올리버가 어진 사람들을 만나 치료를 받고 출생의 비밀이 해명된 다음에야 『행복』을 찾았다는 이야기다.

그 디肯즈가 오늘도 살아 있다면 부모를 잊고도 천대와 멸시란 말조차 모르고 오히려 부모있는 아이들도 부려워 할만큼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북의 원아들의 모습을 보면 과연 어떤 소설을 써냈을 것인가.

환상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현실을 바로 김정은령도자께서 북에 현실로 펼쳐주고계시는것이다.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마음껏 먹이게 된것이 기쁘시여 물고기저장고의 소금물배 인력에 스스로없이 앉아 사진을 찍으시고 평범한 과학자들의 휴양소위치를 잡아주시려 한겨울의 맵짠 날씨에 걸아닌 길을 내시여 걸으신분이 바로 김정은령도자이시다.

한마디로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북을 사랑의 천국, 인민의 락원으로 일떠세워주시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하신 김정은령도자의 연설은 그분께서 얼마나 인민을 하늘로 떠받드시고 인민에 대한 애정으로 가슴을 채우신 분이 신가를 너무도 잘 알수 있

게 한다.

그분께서는 연설에서 인민이라는 표현을 무려 97번이나 불러주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의 혁사는 곧 인민이 걸어온 길, 당의 힘은 인민의 힘, 당의 위대함은 인민의 위대함, 당의 승리는 인민의 승리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나라의 근본인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 리익보다 더 신성한것은 없다고 하시면서 용감하고 슬기롭고 아름다운 우리 인민을 위하여 만짐을 지고 가시밭도 헤치며 미래의 휘황한 모든것을 당겨올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사랑하는 전체 인민들에게 당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조선로동당을 대표하여 깊이 허리숙여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린다고 하신 그분의 말씀에 온 나라 인민이 뜨거운 격정을 삼키였다고 한다.

김정은령도자의 인민에 대한 사랑과 정이 이리 할진대 북의 인민들이 그분을 대가정의 어버이로 모시고 끝없이 흡모하고 따르는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지금 북은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고립압살책동으로 하여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모자라는것도 많으며 힘겹게 끓고나가야 할 곤난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북의 인민들은 좌절을 모르고 비판도 모른다.

그것은 인민사랑의 확신이 시며 모든 승리의 가치이신 위대한 형수께서 계시기때문이다. 그분께서 계시여 모든 사람들이 부럽없는 만복을 누릴 날이 꼭 온다는 굳은 확신 때문이다.

령도자의 옷자락에 온 나라 인민이 안겨드는 특이한 화폭에서 그분께 자기들의 운명을 다 말기고 끝까지 따르고 받들어나갈 북의 군민의 감정과의지를 나는 똑똑히 읽을수 있었다.

령도자와 인민이 일심일체가 된 이런 사회를 무너뜨릴 힘은 세계 그 어디에도 없으며 북은 강성국가건설위업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하게 될것이라는것이 나의 확신이다.

재미동포 리정선

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 리익보다 더 신성한것은 없다고, 용감하고 슬기롭고 아름다운 우리 인민을 위하여 만짐을 지고 가시밭도 헤치며 미래의 휘황한 모든것을 당겨올것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무한한 활력과 왕성한 열정으로 인민을 위해 정을 다하는 헌신의 당, 변함없는 어머니당으로 자기의 무겁고도 성스러운 사명을 다해나갈것이며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도 인민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자기의 본분에 무한히 충실할것을 염숙히 선언하시였다.

인간중심의 위대한 사상을 구현한 사회, 인민대중제일주의기치를 드신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신 공화국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성스러운 혁력을 수놓으며 인민의 아름다운 품파 리상을 실현해나갈것이다.

리철희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인민대중제일주의

중에게 있다는 사상이다.

주체사상은 한마디로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해명한데 기초하여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를 새롭게 밝혔으며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모든것을 대하고 사람의 활동

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공화국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일색화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사람을 제일 중히 여기는 주체사상이 구현된 결과 공화국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인민의 복리향상을 위한것으로 지향되고있다.

공화국에서는 정치의 중심에 언제나 인민이 자리잡고있다. 로선과 정책을 세워도 인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중의 지향과 리익을 철저히 반영

하고있다. 하기야 공화국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인민을 위한 것으로 되고 인민의 전폭적인 지지찬동을 받고있다.

전국의 첫시기 토지개혁법령의 발포와 남녀평등권법령의 채택으로부터 시작하여 무상치료제와 무료의무교육제의 실시, 세금제도의 완전한 폐

향유자 또한 인민대중이다. 문수물놀이장,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 통라이민체육공원, 인민야외빙상장, 미래과학자거리의 초고층살림집들을 비롯하여 도처에 우후죽순처럼 일떠선 인민을 위한 기념비적창조물들, 이는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

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들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밟들이온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그들에게 이 세상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려는 당과 국가의 애민헌신과 멸사복무정신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하신 연설에서 나라의 근본인 인

미래과학자거리 를 보며 (1)

인민사랑이 펼친 황홀한 거리

평양의 풍치좋은 대동강반을 따라 초고층살림집들과 묵음식살림집들이 조화롭게 들어앉은 미래과학자거리에 새집들이가 한창이다.

바라볼수록 저절로 감탄이 터져나오는 회한한 거리, 살림집내부를 둘러보아도 부모방, 부부방, 자식방, 부엌 등에 이르기까지 크고 빈듯한 집에 고급가구와 비품들까지 갖추어져 살림살이에 사소한 불편도 없을 훌륭한 주택이다. 이런 황홀한 거리의 멋진 집에 돈 한푼 안들이고 새집들이를 하게 되었으니 과학자, 교육자들의 기쁨과 환희는 이를테 없다.

새로 형성된 주택지구가 완공되고 새 집 주인들이 살림을 꾸는 이 이채로운 풍경은 부익부, 빙익빈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흉내낼수도 지어낼수도 없는 일이다.

세상을 둘러보면 누구나 알 수 있다. 정치좋고 살기 좋은 곳에는 혜택으로운 정부청사나 대기업들, 부자집들이 들어앉아 권세와 향락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남조선만 보아도 그렇다. 서울에서도 정치좋고 위치가 좋은 강남에는 부자들만이 모여산다고 하여 부자동네로 불

리우고있다. 평범한 인민들은 변두리에 밀려나 살고 지어 집아닌 비닐집, 판자집에 살면서 언제 철거당할지 몰라 불안에 허덕이는것이 폐상사로 되고있다.

그러나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공화국에서는 평양의 제일 풍치좋은 명당자리에 인민을 위한 멋들어진 거리가 일떠섰다.

풍치수려한 대동강을 옆에 끼고 길게 펼쳐진 미래과학자거리.

바로 이런 경치좋은 대동강 반에 각종 상업, 금양, 편의봉사망들과 문화후생시설들은 물론 휴식과 운동도 마음껏 할수 있는 휴식터들과 체육공원들까지 갖춘 새 거리, 새 집에서 평범한 인민들이 사소한 생활상 불편도 모르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된것이다.

새 집에 입사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받아안은 사랑과 배려가 너무도 꿈만 같아 걱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식구 3명에서 궁궐같은 새 집을 받아안은 김형직사범대학 교원 김정호는 《입사증》을 받아안고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여 밤새 짐을 이루지 못하였다. 정말 인민을 제일로 내세워주는 우리 나라가 제일이다. 앞으

로 더 큰 후대교육성파로 이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보답하겠다.》고 말하였다.

이 나라 천만부모의 사랑을 다 합친것보다 더 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인민사랑이 있어 오늘 세상이 부러워 할 황홀한 거리가 일떠서고 근로하는 인민이 기쁨속에 새집들이하는 경사가 난것이다.

이 풍치좋은 대동강반에 과학자, 교육자들을 위한 웅장한 거리를 일떠세울것을 발기하신분도 원수님이시고 여러 차례 건설장을 찾으시고 미행기에서도 내려다보시며 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도록 세심하고 정력적인 지도를 주신분도 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는 지난 9월에도 미래과학자거리 건설장을 찾으시여 새로 건설한 창광상점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인민들에게 안겨줄 갖가지 생활필수품들이 매장마다 가득찬것을 보시며 대단히 기뻐하시였으며 인민들이 새로 일떠선 창광상점이 정말 멋있다고 하면서 언제 문을 여는가고 궁금해 한다는데 미흡한 점이 하나도 없게 운영준비를 더 잘하여 10월 10일을 계기로 개점하라는 사랑의 지시도 내리시였다.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타월한령도에 의해 루라인민유원지, 문수물놀이장, 류경원, 인민야외빙상장, 평양육아원과 애육원, 창전거리가 일떠선 대동강반에 더욱 웅장화려한 미래과학자거리까지 전설되어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는 더욱 높아지게 되였다.

나라의 근본인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 리익보다 더 신성한것은 없다고 하시며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도록 하시고 인민을 위하여 현지지도의 길을 쉬임없이 걸으시는분, 사람들이 뜻밖의 자연재해로 고생을 겪고있을 때에는 너무도 가슴아프시여 그 피해를 하루빨리 가시도록 심혈을 기울이시며 하늘길, 배길을 달려 피해복구현장을 현지지도하신분, 인민생활을 풍요없이 향상시키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운 조선로동당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 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는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여 공화국에서 인민의 꿈과 이상은 나날이 현실로 꽂혀나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주체101(2012)년 11월 3일 완공을 앞둔 류경원을 돌아보시였다.

류경원의 중앙홀에 들어서신 그이께서는 이 홀을 휴식홀로 꾸리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자신의 생각에는 이 공간에 기단을 형성하고 둘로 조각같은것을 만들어놓은 다음 매대를 꾸려놓고 손님들에게 청량음료 같은것을 봉사해주면 좋을것이라고, 이 홀은 휴식홀인것만큼 여기에 반드시 의자를 놓아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온도가 90°되는 건식 한증간에도 들어가보시였다.

그리시고는 한증간을 둘러막은 유리벽체도 만져보시면서 유리이음짬에 넓은 떠를 대고 씨리콘을 쏘이는데 장식도 되고 열손실도 막을수 있다고 하나하나 일깨워주기도 하시고 장마로 대동강물이 흐려지다보니 유효의 물이 맑지 못하다는 보고를 받으시고는 물소독과 려파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도 세워주시였다.

이어 2층에 있는 소금한증간과 소나무한증간, 종유석한증간을 차례로 돌아보신 원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한증을 편안하게 앉아서 할 수 있게 의

자를 놓아주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한증간 휴식홀의 의자를 보시면서도 의자에 씌운 천에 땀이 배면 냄새가 날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의자에는 일반천을 씌우지 말고 소독수로 닦아낼수 있게 수지물을 입힌 빛깔한 천을 씌워야 한다고 이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대중목욕탕 같은데는 지금처럼 호화로운 형식을 취하는것보다 위생성을 보장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쁜 병에 걸릴수 있습니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헤어지기에 앞서 일군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면서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완공되는 날까지 일을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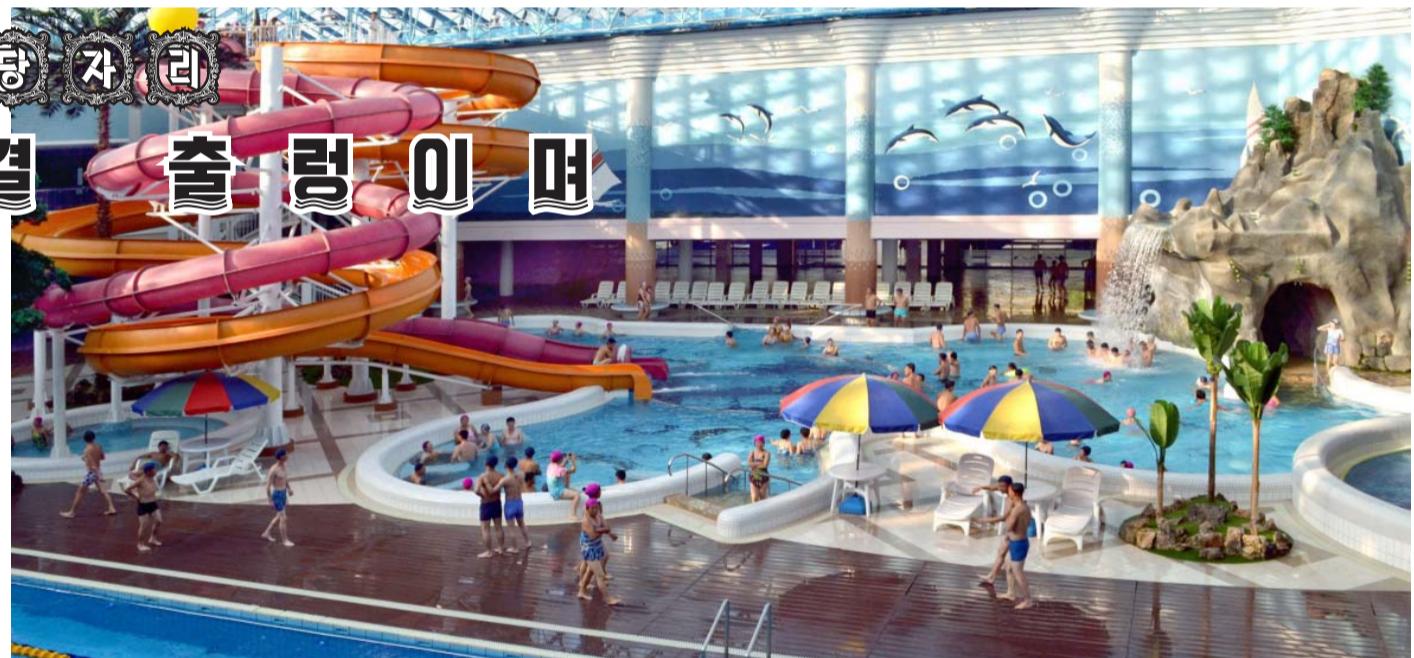
우리 당이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선물인 류경원을 손색없이 꾸려 류경원이 인민들에게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주는 인민의 참된 봉사기지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는것,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조였다.

본사기자

인민을 위한 한증간

한증간의 물결 출렁이며



풍치수려한 대동강반과 잇닿아있는 평양의 문수지구에는 사계절 사람들의 발걸음이 그칠새 없는 거대한 물놀이장이 있다.

이 물놀이장이 방대한 부지 면적에 웅장화려하게 일떠선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문수물놀이장이다.

문수물놀이장이 진설된것은 오래지 않다. 그러나 지금 온 나라가 다 알고 찾아오는 유명한 물놀이장으로 되였다.

야외 및 실내물놀이장들과 각종 야외체육장들로 이루어진 특색있는 문수물놀이장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발기와 세심한 가르침에 의해 일떠선 대중물놀이봉사기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수물놀이장이 완공되면 청소년학생들이 정말로 좋아할것이라고, 문수지구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문수물놀이장건설을 위해 많은 심혈과 헌신을 기울이시였다.

여러차례 건설장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실내물놀이장의 외벽을 대상특성에 맞게 갈매기와 꼽등어, 물방울 등의 색타일로 형상하여 외벽처리를 더 특색있게 할데 대한 문제, 해빛을 막을수 있는 차일풍을 설치하여 인민들이 물놀이를 하다가 나와서 그밀에서 휴식도 하게 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건설에서 나서는 세부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가르침을 주시였다.

그이께서 보아주시고 가르침을 주신 무려 113건이나 되는 문수물놀이장 형성안에도 그이의 인민에 대한 사랑이 뜨겁게 승배여 있다.

문수물놀이장은 각종 물미끄럼대와 수조들로 꾸려진 야외

달하는 수조들도 아주 특색이 있다. 서해의 바다물이 출렁이는 바다물수조가 있는가 하면 맑은 물이 굽이쳐흐르는 기다란 수조도 있고 동화세계를 방불케 하는 아동물공원도 동심세계에 맞게 아기자기하게 꾸려져있다. 인공폭포, 인공바위산, 모래터배구장과 조약대 등 모든것이 물놀이장의 구색에 맞으면서도 사람들의 편리

를 최대로 보장할수 있게 꾸려져있다.

삼복의 무더위때 찾아와 시원한 물에 몸을 잠그는 기분도 상쾌하지만 눈이 평평 쏟아지는 한겨울에도 실내물놀이장의 푸른 물결에서 물놀이를 하는것도 즐거움을 한껏 자아낸다.

조선서해에서 바다물수송관을 통하여 끌어온 바다물수조

에서 파도를 맞받아 헤엄치는 사람들, 바위에서 떨어지는 폭포수를 맞으며 좋아라 웃고뛰드는 사람들, 야외체육장에서 떠들썩한 응원 속에 모래터배구를 하는 사람들...

실내물놀이장도 사람들로 늘 초만원을 이루고있다. 어디가나 사람들의 웃음소리, 물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조약대에서 기교를 부리며 물에 뛰어드는 남녀청년들, 앞서거나 뒤에서거나 수영경기에 열을 올리는 학생소년들, 물미끄럼대에서 지쳐내리며 좋아라 탄성을 터치는 사람들로 하여 물놀이장은 떠들썩하다.

해외동포들과 외국의 벗들도

문수물놀이장을 찾아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 있다.

그곳에서 휴식을 즐기는 해외동포는 《문수물놀이장은 인민을 위하는 령도자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뜨거운것인가를 잘 보여준다.》고 감동을 토로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칠새없이 찾아와 물놀이장이 사람천지를 이루고 기쁨의 웃음소리가 대동강반에 울려퍼지는 이 아름다운 풍경은 인민을 제일로 위하고 온갖 국가적인 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주는 공화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생동한 화폭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6.15 공동선언 발표 이후 삼천리 강토에는 분별의 장벽에 파편구를 내며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대화가 도도히 굽이쳤다.

특히 공화국은 남조선에서 진행되는 국제적인 체육경기들에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하는 조치를 취하여 온 남녘 땅이 통일의 열풍으로 더욱 끓어 번지게 하였다.

주제 91(2002)년 가을 남조선의 부산에서 제14차 아시아경기대회가 진행될 때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경기대회에 공화국의 선수단과 너성취주악단, 대규모의 응원단을 파견하실 구상을 하시고 경기대회가 6.15 공동선언의 기치

높이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반드시 이루하고야말 우리 겨레의 굳센 통일의지를 세계에 힘있게 표시하는 계기로 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이에 따라 그해 9월 공화국의 선수단과 너성취주악단, 너성응원단은 《만경봉 92》호를 타고 해상분계선을 넘어 부산의 다대포항에 도착하였다.

9월 29일 북파 남의 두 선수가 백두산에서 채화된 성화를 부산의 상공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성의 있는 노력 (9)

온 남녘땅에 화해와 통일의 열풍을 일으키며

높이 태래쳐올리는 것으로 개막된 경기대회에서는 《아리랑》선률에 맞추어 북파 남의 선수들이 통일 기를 앞세우고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입장하는 감

격적인 화폭이 펼쳐졌다.

특히 230여명으로 구성된 북의 응원단의 눈부신 활약은 경기대회 시작부터 남녘동포들의 마음을 통채로 틀어잡고 7천만겨레는 민족도 피줄도 언어도 력사도 문화도 땅도 하나라는 것을 만방에 표시하였다.

응원단 성원들은 지휘자의 손세에 맞추어 째인 규를과 하나와 같은 동작으로 북파 남의 선수들을 다같이 응원하였다.

남조선 각지에서 뜨거운 동포애의 정을 안고 모여온 사람들도 자체

로 《한겨레남북 공동응원단》, 《아리랑응원단》, 《갈매기응원단》 등을 뜻하고 대회 전기간 북측의 응원단과 응원활동을 함께하였다.

북측 응원단이 《우리는》하면 남녘동포들이 《하나다!》라고 응답했으며 《조국》, 《통일》, 《우리》, 《민족끼리》의 화답소리들은 경기장을 들었다놓았다.

또한 파도물결식 응원이 진행될 때면 북측 응원단의

응원을 넘겨받은 남녘동포들이 경기장을 한바퀴 돌리고 다시 넘겨주었다.

경기장안은 체육열기보

다도 우리 민족의 통일열

기로 끓어번졌다.

북측 응원단은 경기응원

만이 아니라 여러 장소에서 민족적 향취가 진하게 풍기는 예술공연도 진행

하면서 온 부산땅을 민족

공조, 통일열풍으로 들끓게 하였다.

남녘인민들은 북측에

서 이번에 선수단과 응원

단이 오게 된 것은 6.15 공동선언의 덕이라고, 북의 응원단은 부산땅에 반하여 순식간에 통일열풍

지대로 되었다고, 《손잡고 응원하진 못해도 마음은 벌써 통일됐어요.》라고 하면서 통일을 바라는

남조선의 언론들은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 나온 꽃미녀응원단》이 화제

다. 하나같이 예쁘다. 활

달하고 현란한 응원를 통

채치는 말솜씨까지 결들여 특특한 불거리를 제공

하고 있다.》라고 소개하면

선수단과 응원단을 비롯한 통일사절들을 파견하여 부산땅에 지쳤던 통일에 국의 뜨거운 불길이 온 남녘 땅에 타오르게 하였으며 만나면 정이 통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면 능히 통일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였다.

참으로 남조선에서 진행되는 국제적인 체육경기들에 선수단과 대표단, 응원단을 파견한 공화국의 애국애족의 결단, 주동적인 조치가 있었기에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 위업 수행에서는 보다 큰 전진이 이룩되게 되었다.

본사기자 현은경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추동해나가야 한다

얼마전 민족의 명산 금강산에서 흘러진 가족, 친척 상봉이 이루어진데 이어 평양에서 북남로동자축구대회가 진행된 것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발전을 이루거나 가려는 공화국의 적극적인 자세와 성의있는 노력은 잘 보여주고 있다.

지금 우리 겨레 누구나 북남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조국통일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기를 한결같이 바라고 있다.

북파 남은 온 겨레의 기대와 염원에 맞게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적극 추동하여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이루하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활짝 열어나가야 한다.

공화국은 지금까지 관계개선의 오솔길을 대통로로 만들고 북남관계의 혁사를 새롭게 써나가려는 의지를 안고 온갖 성의와 노력을 다하여왔다.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공화국은 네초에도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 환경을 마련할 것을 호소하였다. 이것은 조국에 대한 대전환, 대변혁을 이루고자 하는 이 해에는 어떻게 하나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이룩하려는 의지를 운운하며 동족대결을

는 성의와 의지가 반영된 애국애족의 호소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레년과 달리 없이 네초부터 관계개선의 대규모 북침전쟁연습의 화약내로 북남판계를 꽁꽁 얼어붙게 했다. 근 2달동안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발광적으로 벌어진 《키 리졸브》, 《독수리》 활동군사연습으로 말미암아 북남관계는 최악의 파국에 처하였다.

민족의 운명에 대한 종대한 책임과 사명감으로 부터 공화국은 적극적인 6.15 공동선언 발표 15돐을 맞으며 정부성명을 통해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 밑에 엄중한 위기에서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원칙적립장과 공명정대한 방도를 천명하였다.

그런데 남조선보수당국은 반공화국 빠라살포책동, 비렬한 《인권》소동, 살벌한 《종북》소동에 더욱 발악적으로 매달리며 북남사이의 불신과 갈등을 더욱 부추겨왔다.

그리고는 그 무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에 텁각한 《제도통일》을 부르짖는가 하면 《북에 끌려다니지 않는 원칙》, 《북의 요구에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운운하며 동족대결을

추구해나섰다.

지난 8월 조선반도에서는 말그대로 일촉즉발의 긴박한 정세가 조성되었었다. 우리 민족의 분별의 대명사인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북파 남의 방대한 무력이 첨예하게 접결된 속에 북남관계는 교전직전의 최극단의 상황에 처하였다.

위험천만한 위기상황에서 공화국이 주동적으로 북남고위급 급접촉을 마련하고 무력충돌로 치닫던 일촉즉발의 위기를 타개함으로써 민족의 머리 위에 드리웠던 전쟁의 먹장구름은 밀려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수호될 수 있었다.

북남고위급 급접촉 결과는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고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승고한 리념의 승리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이 북남고위급 급접촉 공동보도문채택이 마치 저들의 《원칙론의 승리》인듯이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을 비롯한 종교단체 위원장들을 비롯한 대표들이 다 참가하였다.

남조선에서도 불교 조계종을 비롯하여 7대종단 단체장들을 포함한 많은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한마디로 북남의 종교계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가야 할 것이다.

최광혁

지난 9일과 10일에 민족의 명산 금강산에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북남종교인들의 모임이 진행되었다.

지금 북남사이에 고위급 급접촉 합의를 리행하기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속에서 북남종교인들의 모임이 열린 것도 자못 의미가 깊다.

이것은 북남고위급 급접촉의 합의를 리행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에 나아가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조선반도의 대세로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북남종교인들의 모임에는 북에서 조선카톨릭교협회 중앙위원회,

장면해나서고 외세와 앙합한 북침핵전쟁소동에 계속 매달리는 것은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심히 어지럽히는 처사가 아닐수 없다.

북남관계의 개선은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수 없다. 북남쌍방이 다같이 성의를 가지고 진지하게 노력해나가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고위급 급접촉에서 이룩된 합의 정신을 귀중히 여기고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려는 성실한 팀장과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흐리게 하거나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지 말아야 한다.

북파 남은 운명적인 시각에 화를 북으로 전환시킨 북남고위급 급접촉 합의를 소중히 여기고 화해와 협력을 적극 추동하여 관계개선의 풍성한 결실로 가꾸어야 할 것이다.

최광혁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을 비롯한 종교단체 위원장들을 비롯한 대표들이 다 참가하였다.

남조선에서도 불교 조계종을 비롯하여 7대종단 단체장들을 포함한 많은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한마디로 북남의 종교계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가야 할 것이다.

금강산은 민족의 명산 이자 통일의 명산이다. 북남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되고 하

북남로동자들 한데 어울렸다 경사로구나 북남로동자통일축구 관람석에 넘쳐나는 환호의 물결 너도 나도 이겨라 열띤 응원은 하늘을 찌른다

와—와—정말 멋이 있다 그물에 날아드는 뿔 정말 통쾌하구나 모두다 《12번》선수가 되여 선수들과 함께 경기장을 달리는가

경기는 끌나지 않았다

경기장을 누빈 북남로동자축구선수들 서로 손을 맞잡고 경기장주로를 돌 때 아, 그만큼 통일은 가까워오는 것인가

우리의 경기는 계속되리라 통일의 결승선이 눈앞에 있기에 그날까지 쉼없이 출기차게 함께 통일의 공을 물아갈 북남의 로동자들이여 오, 우리의 경기는 끌나지 않았다

늘길, 바다길, 땅길이 열리고 배왕과 협력이 활발 하던 지난 6.15시대에 금강산은 겨레의 마음속에 더욱 소중히 자리잡았다. 해마다 이곳에서 북남의 로동자, 농민, 종교인, 여성을 비롯하여 각이한 계층별 행사들이 성

안고 혈육의 정을 나누던 상봉행사들도 진행되어 통일열기를 더해주었다. 6.15가 놓아준 《통일오작교》를 타고 금강산의 육류동, 구룡폭포, 해금강 등을 돌아보며 통일세상을 하루빨리 안아올의지를 굳히던 수많은 남조

레이는 바람결에 가만히 귀기울여보면 금강산의 단풍잎들의 통일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는듯 싶고 붉게붉게 타오르는 일새들마다 민족의 통일념원이 비낀것 같아 무심히 볼수 없는 금강산의 단풍이다. 그 아름다운 천하절경을 보면서 이번에 북남의 종교인들은 서로의 이해를 도모해나가고 기념사진들도 찍었으며 민족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앞장서나갈 종교인들의 마음을 담은 공동성명도 발표하였다.

가을은 어디가나 단풍이지만 금강산의 단풍은 더붉게 탄다. 리어금

단풍이 든 금강산에서

여덟아 평화와 통일을 론의 한것이다.

이번 북남종교인 모임은 민족의 명산 금강산에서 진행된 것으로 하여 더 우기 겨레의 눈길을 끌고 있다.

금강산은 민족의 명산 이자 통일의 명산이다. 북남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되고 하

선관객들의 모습도 잊을수 없다.

그때로부터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지만 금강산은 지금도 우리 겨레에게 격동적인 6.15시대를 추억해주며 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겨오라고 속삭여 주는듯싶다.

지금 금강산은 진한 단풍으로 물들어있다. 설

세기를 이어오는 일본의 침략야망

역사를 돌이켜보면 임진왜란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의 침략책동은 그칠새 없이 계속 되어왔다.

그나날들 속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파쑈적인 식민지 강점통치를 실현하기 위해 강권과 사기협잡 등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한 날도 있다.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인 1905년 11월 17일 일제의 횡포한 위협공갈로 『을사5조약』이 날조된 후 우리 민족은 40여년간에 걸친 역사를 류례 없는 가혹한 식민지 통치를 강요당하였다.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화한 『법적근거』로 삼은 『을사5조약』은 국제법상의 요구와 원칙을 란복하게 유린하고 총칼을 휘둘러 날조해낸 조약 아닌 날치기 허위문서이며 그 어떤 법적 타당성도 가질 수 없는 비법적인 『조약』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시의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을사5조약』 날조를 위해 한성일대에 수많은 침략군 무력을 집결해놓은

조선 침략의 피수 이또 히로부미(이동박문)는 왕궁에 기여들어 고종황제에게 『1. 황제의 아래에 전국을 통치하기 위해 일본인 인통감을 임명할 것, 2. 각 개항장에 일본인 행정관을 임명할 것, 3. 외교사무를 도쿄에 이전할 것, 4. 일본의 승나 없이 어떠한 협정도 타국과 체결할 수 없다.』는 등의 강도적인 내용으로 된 『보호조약』 원안을 내놓고 그것을 무조건 접수할 것을 강요하였다.

그러면서 이또는 고종에게 저들의 암이 『움직일 수 없는 확정안』이라고 못박고 그것을 거절하는 경우 무사히 못 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어떻게 해서나 저들의 범죄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다.

이것도 성차지 않아 일제는 날강도적인 『조약』 날조를 위해 1905년 11월 17일 수많은 기병과 포병, 보병 무력으로 궁성 안팎을 겹겹히 포위하고 궁성 앞 종로부근에서 대규모의 광란적인 군사훈련까지 벌려놓았다. 이런 위협과 공갈,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일제는 『을

사5조약』을 날조하였다. 그것은 당시 조선의 최고 주권자인 황제 고종의 승인, 수표, 국새 날인을 받지 못한 허위 날조된 국제적 협정문서였다.

일고의 합법성과 적법성도 없는 불법 무효한 『을사5조약』을 날조한 흥악 무도한 일제는 40여년 간이나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 강점통치를 실시하였으며 우리 거례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 정신적 및 물질적 피해를 들씌웠다.

제국주의 침략의 혐오에 저들의 암이 『움직일 수 없는 확정안』이라고 못박고 그것을 거절하는 경우 무사히 못 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어떻게 해서나 저들의 범죄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파거 일본처럼 체결되지도 않은 가짜 『조약』을 조작, 공포하여 반만년의 혈사국을 식민지로 강점하고 40여년 동안이나 포악무도한 지배와 억압을 감행한 것과 같은 치열리는 사실은 일찌기 없었다.

가증스러운 것은 일본이 폐망 70년이 된 오늘까지도 파거 범죄에 대한 성근한 반성을 고사하고 오히려 우리 나라에 대한 침

략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일본수상이 제2차 세계 대전이 종결된지 70년이 되는 것을 계기로 그 무슨 『당화』를 발표하면서 파거 저들의 침략 혐오에 대한 성근한 인정과 사죄의 내용은 하나도 없이 요리조리 회피하면서 말장난질을 한 것은 일본집권층이 아직도 파거 범죄를 성근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파거 청산회피는 결국 수치스러운 침략과 범죄의 혐오를 되풀이 하겠다는 소리이다.

실제로 일본은 『일미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고 『자위대법』, 『무력 공격사태법』, 『주변사태법』 등 10개 법안을 일괄한 『평화안전법』과 국제분쟁에 대처하는 다른 나라 군대에 대한 후방지원을 언제든지 가능케 하는 『국제 평화지원법』 등이 포함된 『안전보장관련법』을 제정하는 등 『대동아 공영권』의 옛꿈을 이루어보려고 어리석게 놀아대고 있다.

일본이 수치스러운 파거에서 교훈을 찾고 철저한 사죄, 반성을 할 대신 그와 반대되게 피비린 파거를 재현하는 길로 계속 나간다면 일본의 종국적 파멸이라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물 덤벙, 술 덤벙한

다

남조선당국이 외세와의 반공화국 핵공조에 계속 혈안이 되고 있다. 얼마 전 외교부 장관 윤병세와 통일부 장관 홍용표가 제12차 아시아유럽 회의(阿森)와 서울에서 열린 『국제연단』 이라는데서 『북핵 문제에 대한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니, 『비핵화에 대한 북의 진정성 있는 행동』이니 뭐니 하며 떠들어 댄 것도 그 하나님의 실례이다.

이것은 조선반도 핵문제의 본질과 근원도 모르는 자들의 무지무도한 추태이며 북남 관계 개선에 복잡성과 장애만을 조성하는 무분별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조선반도에서 핵문제는 철두철미 미국에 의하여 산생된 것이다. 지난 조선전쟁 시기 원자탄 공갈로 수많은 흘어진 가족, 친척 문제를 발생시킨 미국은 전후에도 『제2의 조선전쟁』이 일어난다면 핵무기 사용을 주저하지 않는다.』라고 폭언하였으며 남조선에 비밀리에 1 000여 기의 핵탄두와 핵운반수단들을 끌어들이었다. 그런 가하면 남조선의 호전 세력들과 야합하여 규모 북침

번영도 있다는 것을 여실히 실증해주고 있다.

미국의 핵은 오늘도 공화국을 겨누고 나날이 증강되고 있다. 미국의 핵 학교, 핵 잠수함, 핵전략 폭격기들이 때없이 남조선과 주변 해역에 밀려들며 공화국에 대한 전략적 핵 타격 연습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만인이 보는 현실이다. 미국은 최근 공화국이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보장을 위해 제기한 건설적인 제안에 대해서도 거부적인 태도를 취하고 공화국에 핵을 포기하라고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공화국이 국가의 존엄과 최고리익, 인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위의 억제력을 보유한 것은 천만번 정당한 일이다. 그 핵은 동족을 위협하는 핵이 아니라 미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이 땅의 평화를 지켜내고 전체 조선민족의 안전을 굳건히 담보해주고 있는 것이다. 조선이 핵을 가졌기 때문에 미국은 공화국을 제일 적대시하면서도 중동에서는 침략전쟁의 불구름을 일으켰지만 감히 이 땅에서는 침략의 포성을 울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핵 위협을 막아내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정의의 핵을 포기하라는 것이야말로 미국의 대조선 압살정책에 추종하여 공화국을 무장해제시키고 종당에는 『체제통일』의 야망을 이루어보려는 범죄적 기도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공화국은 지금 세계가 공인하는 핵보유국이다. 이러한 지위는 누가 인정하고 안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공화국은 그에 구애됨이 없이 자기가 선택한 병진로선의 한길을 계속 끊임없이 걸어나가고 있다. 현실은 병진로선의 길에 이 땅의 평화도 있고 민족 만대의 부강

남조선당국이 외세와 부질없는 핵공조에 계속 매달려봐야 사태의 복잡성 만 더욱 키우고 지금의 북남 관계 개선 흐름에도 장애만을 조성하는 부정적 결과밖에 초래될 것이다. 남조선당국은 공화국의 립장을 똑바로 알고 어리석은 핵공조 놀음을 겪어치워야 한다.

김연희



『색갈혁명』과 피난민 사태

개조』의 성과를 얻지 못하게 하였을 뿐더러 오히려 그칠 새 없는 혼란과 충돌에 빠지게 하였으며 수백만 명의 피난민들이 살곳을 찾아 고향을 떠나게 하였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럽에 밀려든 피난민들 중 대다수는 수리아에서 온 피난민들이다. 유엔은 수리아 내전으로 발생한 위기가 『랭전』이 결속된 이후 가장 엄중한 인도주의 적재난』을 초래하였다고 밝혔다.

중동 정치 전략 연단 책임자 싸미르는 『미국의 간섭과 함께 그의 지역 동맹국들이 수리아 반대파 세력을 무장시키고 지원한 것』이 이번 재난을 초래하였다.

현재 수리아는 국가 분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였다. 사실상 수리아를 제외하고 뚜렷지와 에질트 등이 모두 미국이 추동한 『색갈혁명』의 시험장으로 되었으며 미국은 판에 박은듯 한 방식으로 즉 『민주주의와 자유』의 구호 밑에 대규모적인 시위와 광장 집회를 벌리도록 반정부 세력을 부추겨 이려한 나라들의 정권에 커다란 압력을 조성하고 나아가서 이 나라들에서 정권을 련이어 무너뜨렸다.

『색갈혁명』이 일어난 모든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 나라들에서 더 좋게 변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보다 엄중한 형세에 직면하였다.

『색갈혁명』 이후 이 지역의 나라들에서 혼란과 충돌이 일어났을 뿐 아니라 레토가 만연되고 피난민 사태가 발생하였다.

제가 판 함정에 제가 빠진다고 지금 미국과 유럽은 저들의 후원과 사족 밀에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일어난 『색갈혁명』의 『덕』을 단단히 보고 있다.

극단 조직인 『이슬람교 국가』는 『색갈혁명』으로 어지러워진 정세의 기회를 타서 수리아와 이라크 두 나라 국경지대의 한길을 계획한 꽃길이 걸어나가고 있다. 현실은 병진로선의 길에 이 땅의 평화에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도이췰란드의 『마살기금』의 한 분석가는 『유럽과 중동 사이에 형성된 불안정한 형세는 유럽이 장래에 처하게 될 전략적 환경의 특징으로 될 것이다. 만일 미국이 피난민 사태를 수수방관한다면 대서양 양안 관계가 분열될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유럽인들이 피난민 사태는 미국의 대수리아 간섭 정책이 실패한 후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세계 제3대를 노린 미국과 그에 암합하는 서방 나라들의 충동으로 서아시아 나라들로부터 벌어진 『색갈혁명』과 그로 인해 파급되는 피난민 문제를 통해 세계는 지구상에서 누가 평화를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장본인인가를 똑똑히 가려보았다.

유럽이 피난민들에게 번영도 있다는 것을 여실히 실증해주고 있다. 미국의 핵은 오늘도 공화국을 겨누고 나날이 증강되고 있다. 미국의 핵 학교, 핵 잠수함, 핵전략 폭격기들이 때없이 남조선과 주변 해역에 밀려들며 공화국에 대한 전략적 핵 타격 연습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만인이 보는 현실이다. 미국은 최근 공화국이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보장을 위해 제기한 건설적인 제안에 대해서도 거부적인 태도를 취하고 공화국에 핵을 포기하라고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고 있다.

본사기자 김응철

정의를 짓밟는 파쑈폭거

최근 남조선에서 당국의 혐오로 교과서 『국정화』 강행 책동과 로동 악정을 반대하는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 기운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9일 남조선의 전국 교육원로 동조합(전교조)은 기자회견을 열고 당국의 혐오로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여 11월 20일 『년간 투쟁』(한꺼번에 휴가를 내서 일을 거부하는 일종의 파업)을 벌리며 2차 교사 『시국선언』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9일 전국 대표자 회의와 투쟁선포식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으라〉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에 맞서 힘차게 싸워 함께 살길을 찾자』,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바른 『정부』를 심판하고 재벌세상을 뒤집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교사 『국정화』와 로동 악정을 반대하여 남조선의 각계층이 벌리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투쟁들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옮겨바른 혐오를 가르치고 초보적인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지극히 정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민심의 정당한 요구에 귀를 기울일 대신 저들의 범죄적 책동을 합리화하고 인민들의 투쟁을 탄압하는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

교사 『국정화』 실현에 혈안이 되어 날뛰는 남조선 교육부는 11월

5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관계자 84명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지어 파거의 친일 친미파 쇼군 독재를 찬미하고 동족 대결을 추구하는 혐오로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여 나선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을 그 누구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서 공화국이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모략보도까지 뮤포시키는 등 케케묵은 『색갈론』까지 동원하고 있다.

한편 남조선 보수당국은 파쑈 경찰을 동원하여 로동 악정을 반대해 나선 조단체들의 사무실들을 압수수색하는가 하면 지방의 경찰 병력까지 서울에 끌어들여 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마구 탄압 하려고 하고 있다.

남조선당국의 이러한 탄압 행은 명실공히 민심에 역행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는 반인권, 반인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파거의 친일 친미 독재를 미화하는 혐오로 교과서 『국정화』 강행으로 혐오를 거꾸로 되돌리려 하고 인민들에게 로동 악정을 강요하는 남조선당국의 범죄 행위는 그 무엇으로 써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민심의 거세찬 분노와 항의만 자아낼 것이다.

본사기자 서희



▶▶▶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궁궐 같은 새 집에서 만복을 누리게 된 교육자, 과학자들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이채로운 풍경이 펼쳐졌다. 새로운 문명개화기가 펼쳐져 더욱 약동하는 시대에 훌륭히 완공된 미래과학자거리가 온통 새집들로 이경사로 홍성인 것이다. 황홀한 새 거리로 이사집을 살고 들어서는 자동차행렬들, 좋아

어쩔 줄 모르는 아이들, 꿈같은 행복에 울고웃는 사람들… 진정 그 모습은 이 나라의 교육자, 과학자들이 심장으로 터치는 사회주의만세소리였다.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만복의 주인공들을 찾아 우리는 취재길에 올랐다.

《행복의 상상봉에 올랐습니다》

누구부터 만날까? 수천세대 었다. 겨울철온도보장을 위해 살림집과 150여개의 봉사망들이 꽉 들어찬 미래과학자거리 한복판에서 한동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전자자리길 모양으로 타래쳐오른 특색 있는 초고층건물이 시야에 비껴왔다. 그것을 보는 순간 미래과학자거리의 상징이라 할수 있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이 솟아오른 초고층살림집의 맨 윗층에 누가 살가 하는 궁금한 생각에 저도 모르게 그리로 발걸음을 옮기었다.

무더운 여름철에도 시원한 바람이 그칠 줄 모른다는 백수십m의 높이에 있는 53층에 오른 우리는 2호집의 초인종을 눌렀다. 그러자 문이 열리더니 젊은 사람이 우리를 반겨 맞아주었다.

새집들이를 취재하러 온 기자라고 소개하자 그는 자기가 이 집에서 살게 될 평양정보기술국에서 연구사로 일하는 박명근이라며 우리를 방안으로 이끌었다.

우리는 그의 안내를 받으며 새 살림집의 여기저기를 돌아보았다. 산뜻한 색타일들로 꾹 꾹 장식된 부엌에는 가정주부들이 좋아하는 가시대며 멋있는 찬장, 배풍기 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공동살림방, 서재, 자식방, 부부방 등 방만 해도 다섯칸이나 되는 집은 정말 희한하고 멋있었다.

침대며 쏘파, TV탁, 책장, 의자를 비롯하여 10여종이나 되는 고급가구들과 비품들은 방안의 품위를 한껏 돋구어주

서 멀리 주체사상탑과 5월1일 경기장, 류경호텔, 통라이민유원지, 과학기술전당을 비롯한 인민사랑의 창조물들이 조화롭게 어울려 거대한 예술작품처럼 안겨왔다.

아름다운 평양의 전경에서 눈걸을 떼지 못하는 우리의 귀전에 박명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저의 심정은 세상의 모든 행복을 혼자 득차지한것만 같아 막 벽차오릅니다. 서른살밖에 되지 않은 제가 일을 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과학기술로 조국을 반드시 길에서 언제나 밀거름이 되리라 생각했던 우리들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행복의 상상봉에 올려세워주시였습니다. 꼭 꿈을 꾸는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눈앞에는 과학자, 교원들에게 하루빨리 희한한 새 살림집을 안겨주시려 흙먼지 날리는 건설장도 걸으으며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가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눈시울 뜨겁게 아려왔다.

어제는 과학자, 교육자들을 배정하는것이 관례가 아닙니까. 한해전 행복의 둑배마냥 나란히 솟아오른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 연풍과학자휴양소와 같은 사랑의 금방석에 앉혀주시더니 오늘은 또 다시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미래과학자거리를 일떠세워 통채로 안겨주신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속에 행복의 상상봉에 올라선 이 나라의 과학자, 교육자들이 아닌가.

인민의 꿈이 꿈아닌 현실로 꽂펴났음을 부풀어오르는 가슴 속에 새겨안으며 우리는 또다른 행복의 이야기를 찾아 취재길을 이어갔다.

는 또 어떤 기쁨이 있을가 하는 호기심을 안고 들어서니 사람들은 둘러싸여 축하의 꽃다발을 받고 있는 한 여성의 모습이 안겨왔다. 알고보니 김순희 김책공업종합대학 정보과학기술대학 강좌장이였다.

기자들임을 알아본 김순희 강좌장은 우리에게 『잘 오셨습니다. 평범한 우리 여성교육자들이 받아안은 크나큰 이 행복을 세상에 대고 소리높이 자랑해주시십시오.』라고 눈물이 글썽하여 말하는것이었다.

그는 지금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이번에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수십여명의 여성교육자들이 미래과학자거리에서 살게 되었다면서 살림집리용증서를 펼쳐보이는것이었다.

거기에 씌여진 『현 리용자 이름 김순희』라는 글줄, 길지 않은 그 글줄은 온 세상이 부러워할 궁궐 같은 살림집의 주인이 김순희강좌장이라고 소리 높이 웨치는것만 같았다.

『살림집은 세대주들에게 배정하는것이 관례가 아닙니까. 한해전 행복의 둑배마냥 나란히 솟아오른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 연풍과학자휴양소와 같은 사랑의 금방석을 보며 몹시 부러워했었는데… 글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여성교육자들의 마음속소망까지 속속들이 헤아려주실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의 말을 들으며 공감을 표시하는 우리에게 김순희강좌장의 남편인 리시훈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언젠가 과학기술교류차로 어느 한 나라에 갔던 그는 그 나라의 대학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많은 교육자들이 퇴직할 때까지도 온전한 집 한칸 해결하지 못하고 남의 집 세방살이를 하고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고급주택도 아니고 수수한 일반주택을 마련하자고 해도 값이 너무도 엄청나게 들어서였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에 대비할 수도 없이 크고 넓은 집을 돈 한푼 내지 않고 그것도 평범한 여성교육자가 받아안았으니 이 사실을 그 나라의 교수, 박사가 안다면 심정이 파연 어여하랴.

『우리 여성교육자, 여성과학자들을 최첨단과학기술로 강성국가건설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메고나가는 애국자로 값높이 내세워주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에서만이 꽂펴날수 있는 희한한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경애하는 원수님의 과학종사, 인재증시사상과 정책이 여성교육자, 여성과학자

들이 살게 될 살림집에 이르기 까지 그 얼마나 속속들이 미치고 있는것인가.

이런 생각에 잠겨 그가 받아온 살림집리용증서를 보느라

니 만사람의 축복속에 사회의 꽃, 시대의 꽃으로 떠받들리는 이 나라의 여성교육자, 여성과학자들이 행복의 군상으로 우렁이 안겨왔다.

심장의 마지막 박동까지 바쳐

우리는 미래과학자거리의 한 가운데 물결모양으로 특색있게 일떠선 아빠트의 3층 2호에도 들렸다.

아들과 함께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교편을 잡고있다는 리성철교원은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오늘 아침 날도 채 밝기도 전에 문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아빠트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겠는가. 사연인즉 미래과학자거리의 새 살림집에 이사하는데 일손을 하나라도 돋고 싶어 왔다는것이었다.

이들만이 아니었다. 큰 공을 세운것도 아닌 나를 영웅처럼 떠받들며 동사무소일군들이 꽃다발을 안고 찾아오는가 하면 이사짐을 실고 며칠 때에는 온동네가 떨쳐나 바래주며 명절처럼 홍성거렸다. 아마 돈이 많아 이사를 간다면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떨쳐나 바래줄수 있었겠는가.

더욱 감동적인것은 새 집에 이사와서 조선인민군 장령에게서 집열쇠를 받을 때였다. 그 순간 왜서인지 가슴이 뭉클 젖어들었다.

인민군인들이 교육자, 과학자들을 위해 최상급의 살림집들을 훌륭히 건설하여 열쇠를 넘겨주는것은 교육자, 과학자들을 금방석에 앉혀주고 하늘처럼 떠받드는 우리 나라에서만이 볼수 있는 사회주의 풍경이 아니겠는가.

얼마전 미래과학자거리를 돌아본 남조선로동자축구대표단 성원들이 이런 궁궐 같은 살림집들에서 평범한 교육자, 과학자들이 살게 된다니 믿을수 없다고, 남조선에서는 돈많은

*
취재를 마치고 나서니 어느

덧 저녁어스름이 깃들었다. 불밝은 야경속에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솟아오른 미래과학자거리의 웅장화려한 모습이 한폭의 그림처럼 안겨들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대한 과학기술증시사상을 온 세상에 파시하며 솟아오른 저 행복지금자리들, 밝은 불빛이 쓸어져 나오는 저 창가마다에서 과학의 힘으로 세계를 압도해나갈 맹세가 흘러나오리니 행복의 거리, 미래과학자거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앞에는 끝없이 부강번영 할 공화국의 래일이 보이는듯싶었다.

본사기자 흥범식
" 고영숙
" 김철호



시

삼가 꽃바구니 드리옵니다

평양의 저녁

- 평양 친선병원 정원에서 -

하늘에 선 뜻별들이 반짝이는데
병원 앞 고층 살림집 불 밝은 창문들에 선
들려오거나 사회주의 내 조국의 노래이런가
행복한 가정의 웃음소리...

들려와라
거리를 달리는 빼스며 승용차들의 경적소리
퇴근길의 활기찬 사람들의 떠들썩
조선로동당의 70년 위훈을 구가하는
대동강반 1만명의 대공연노래소리...

그 노래속에 울려온다
평양애 육원과 육아원, 평양양로원의 창문
을 흔드는
원아들과 보양생들의 웃음소리
릉라꼽등어판의 환호성과 승마구락부의 말
발굽소리
출렁이는 대동강 『무지개』 호에선 날아올
라라
행복넘친 즐거운 인민의 웃음소리
사회주의 선경으로 일떠선

라선지구의 새집들이 소식

하늘에 선 우리가 제작한 비행기가 날고
지하에선 우리가 만든 전동차가 달리는 소리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의 타빈이 돌아가고
미래과학자거리와 과학기술전당이 일떠서고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최첨단을 들과해나가는 소리

오, 들려온다
원수님의 두리에 일심으로 굳게 뭉쳐
승리와 번영의 한길로
10년 세월 1년으로 주름잡으며 힘차게 솟구치는
내 조국의 장엄한 퍼덕임소리
세계를 진감하는 최후승리의 만세소리!

아, 평양의 이 저녁
나는 듣는다
무궁번영 김정은 시대를 노래하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위대한 송가를!

간호원의 고운 눈길에서

호리호리한 몸매에 얼굴은 환하기도 하지
그 속에 호수 같은 간호원의 눈
파별에 쏘이듯 주사침이 아플 때
오히려 제가 아픈듯 찡그려지는 고운 눈

간호원의 아버진
이름난 어느 병원의 책임기사
어머니는
명망높은 대학의 교수이라지

허나 17살 나이에
스스로 군복을 입었다는 처녀
수년간 최전연초소에서

원쑤와 총부리 맞대고 조국을 보위한
처녀

환자들을 대할 땐 간호원의 그 눈
정성과 즐거움에 빛나는 아름다운 구슬
허나 총을 들고 침략자들을 겨눈다면
원쑤들에겐 다시없을 멸망의 함정!

나는 보았다
간호원의 아름다운 그 눈길에서
인민들에겐 한없는 정에 넘치고
원쑤들에겐 더없는 증오심에 불라는
청년강국의 활화산 같은 사랑과 증오를!

투약 시간에

내 몸에 흘러든 것은
약이 아닙니다
조국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보답의 불덩어리

내 몸에 흘러든 것은
약이 아닙니다
가슴에 재워지는 화약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애국의 총폭탄!

나는 창문을 열어 제낀다

- 늦가을 비 창문을 두드리는 입원실에서 -

늦가을 찬바람 거세차지 누나
락엽은 여기저기 날려가 누나
하늘엔 검은 구름 뒤덮이고
차거운 가을비 그칠 줄 모르는 구나

병석에 누워 있는 환자의 마음
저도 모르게 집생각 가득 차올라
걷 잡을 수 없구나 쓸쓸하고 불안한
마음
호전되던 병세마저 되돌아설 듯...

허나 아니 할 생각
병실문 두드리는 소리에 이어
웃음 많은 담당간호원 들어섰거니
받쳐든 아침식사 그릇에선
더운 김이 무럭무럭...

점적액은 더워 있고

이불밀 더운 물병 온몸을 덥혀줄 때에
어디로 사라졌다
창밖의 비바람소리...
오, 이때라 이 순간
가슴통를 다가오거나
어머니의 얼굴...
안해의 얼굴...

때 아닌 늦가을 비 나무잎을 떨구고
비바람 세차게 몰아쳐와도
따뜻이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어머니조국의 뜨거운 사랑...

기쁨에 겨워 행복에 겨워
나는 힘껏 창문을 열어젖힌다
창밖엔 비뿌리고 바람세차도
내 마음속엔
무지개 아름답고 해빛이 찬란하다!

안해와 나 눈 조국이야기

- 중국에 있는 안해와 전화로 만나다 -

깜짝 놀랐다 누나
입원치료 받는다는 갑작스런 소식에
전화기에 울려오는
당황하고 걱정스런 안해의 목소리
병원조건, 의료수준 괜찮은가
식사는 구미에 맞는가
불편한 점은 없는가
살뜰하고 정깊은 안해의 목소리...
평양친선병원은

조국에서도 이름높은 병원
우리 해외동포들을 위하여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세워주신 병원
현대적인 설비에 의술높은 선생님들
문력이 많도록 병실문을 넘나드는
담당의사와 간호원의 정성어린 치료에
건강은 어느새 회복단계...

조국에선 무상치료제란 말은 들었어도

그것이 정말인지
치료비와 식사비를 걱정하는
안해의 혹시나한 목소리...

오, 이때라
내 가슴에 넘쳐나는
사회주의 조국의 해외공민된
찌릿한 자부심이여!
침략의 피수 미제와 맞서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웠더란다

새벽 안개 속의 친선병원 소묘

정원의 미남자 수삼나무 아직 늦잠자는데
언제 깨였나 대추나무우에선 다람쥐 오르락
내리락...
건강을 회복한 나를 축하하는 음악이런가
새벽고요 훈들며 멀리서 들려오네
첫 뼈스의 은은한 경적소리...

어린시절 내 이마 짚어주며
얼른 잠간 나을거라 다독여주시던
흰 머리수건의 어머니모습이런가
새벽안개속의 평양친선병원이여
불밝은 입원실 창문가엔
안개라고 내려온 하늘나라 신선들인가
날 밝도록 정성을 명약으로 환자들을
돌보는
하얀 위생복의 의사와 간호원들...

입원실 창가를 목빼들고 기웃한 감나무여
그 어디에 또 있을 손가 무상치료제의 지상
락원
불빛에 반짝이는 아지마다 주렁진 빨간 감알은
나의 건강 축하하는 축포의 불꽃이런가

병원홀에 정히 모신
두분의 태양의 미소 눈부신 평양친선병원이여
내 높뛰는 심장 들썩이며
온 세계가 찾아오는 너의 뜰안에 서있노라

크나큰 격정에 내 할 말을 잃고
인민의 락원 사회주의 내 조국-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을 노래하는
지구를 놀러디던 하나의 커다란 감탄표로
내 서있노라 온 세계를 향하여!

말이 아니라 몸으로 알았습니다

무상치료제의 혜택이 얼마나 큰 줄을
사회주의 조국이 얼마나 좋은 줄을
말이 아니라 건강해진 몸으로 알았습니다

작별의 순간이여!

- 평양 친선병원을 퇴원하면서 -

끌내는 오고야말았구나
그토록 걱정하고 근심했건만
그토록 오지 않길 바라고 또 바랐건만
무정도타 정녕코 다가온 퇴원의 날이여
정든 병원 떠나야 할 작별의 순간이여

환자로 다시는 병실에 들어놓지 않으려는 듯
차겁게 빛 뿌리는 침대며 랭장고며 물고뿌...
왜라서 이토록 눈물겹게 가고싶을가
매일 『공포』에 떨며 들어서던 이비인후과
치료실...

정답게 손저어주누나
아침저녁 산보길에 가까워졌던
담당의사 돌보는 밤나무며
간호원 처녀 보살피는 은행나무
병원들 안의 대추나무며 백살구, 단풍나무들
아지뻗쳐 바람결에 서로 서로 흔드는 잎새...

알았던가 물렀던가 병원의 보건일군들
복도에서 스칠 땐 그토록 점잖더니

이런 조국 헐뜯는 무리 얼마나 나쁜 줄을
이런 조국 어떻게 지켜야 하는 줄을
말이 아니라 튼튼해진 몸으로 알았습니다

작별의 순간이여!

- 평양 친선병원을 퇴원하면서 -

너도 나도 달려와 얼싸안고 손잡고 앓지 말
라고
나누는 작별의 인사 눈물겹도록 뜨거운데
한 구석의 눈물만 글썽한
담당의사 선생과 담당 간호원 처녀...

울컥 치미는 감정 누르고 얹지 웃을 지으며
잘 있으라 목에여 이 한마디 외울 때
끌내는 눈굽에 번쩍이는 뜨거운 이슬
마주잡는 손길은 왜 이다지도 서투른가

잘 있으라 잘 가시라
그동안의 모든 사연이 한마디에 담아
우리 서로 목에여 다시 외울 때
우리 서로 뜨겁게 얼싸안을 때
그대들은 조국땅에서
나는 이국땅에서
고마운 우리 조국-원수님을 잘 받들자
쿵! 쿵! 지구를 울리는 심장의 박동이여
아, 맹세로 뜨거운 작별의 순간이여!

삼가 꽃바구니 드리옵니다

완쾌하여 병원문을 나서는 이 아침
평양친선병원 중앙홀에 높이 모신
영원한 태양 수령님들의 텁상화 우러러
삼가 꽃바구니를 드리옵니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해외공민이였습니다
천만년 세월 가도 못다 갚을 그 믿음속에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그 사랑속에
오늘은 재종총련의 일꾼으로 자랐습니다

수십년 세월을 함께 살아온
다정한 안해도 자식도 별치 않게 여겨온 병
10년 세월 그저 그렇거니 않으며 길러온 병
보살펴 뜨겁게 보살펴 건강을 되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그 사랑...
먼곳의 자식들을 더 위하는 친아버지 심정으로
불리주십니다
조국의 큰 명절 경사의 날마다
세워주십니다
온 겨레 온 세계가 지켜보는 영광의 주석단에
안겨주십니다

자애의 은정어린 뜻깊은 생일 상도...

대를 이어 베풀어지는
한량없는 사랑과 배려 너무도 고마워
눈부신 우리 해님-원수님 우러러
목에여 목에여 고마움에 눈물젖는 저희들입니다

삼가 꽃바구니를 드리옵니다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게 변모되는 조국의 모습
원수님 가리키시는 무궁번영의 그 손길 따라
역세계 역세계 통일 강성 국가건설에 다 바쳐
갈 이 마음...

삼가 꽃바구니를 드리옵니다
우리 해외공민들의 자애로운 어버이
경애하는 원수님께 충정다할 한마음 담아
불리는 맹세 철석의 신념으로 삼가 엮은
꽃바구니
우리의 우리 위대하신 수령님들께 드리옵
니다

해마다 성대히 진행되는 전국조선옷전시회

독특한 형태와 무늬, 색깔을 가지고 있는 우아하고 소박한 조선옷을 민족적 특성과 시대적 미감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는 데서 해마다 진행되는 전국조선옷전시회는 중요한 역할을 놓고 있다.

전국조선옷전시회는 조선옷의 우수성과 그 제작 방법을 널리 보급하는데만 의의가 있지 않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구현한 우리 식의 옷》, 《사회주의 문명국의 옷》, 《애국의 냇이 어린 우리 식의 옷》...

현대 문명을 사랑하며 세계의 곳곳에서 무수히 열리고 있는 옷전시회들에 이처럼 민족의 퍼가 뛰고 숨결이 느껴지는 주제와 제목으로 열린 전시회들이 있었던가. 우리 민족의 유구한 문화유산과 그 전통을 면면히 이어 더욱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공화국에서만 펼쳐지고 있는 화폭이다.

전국조선옷전시회에 대한 각계의 관심과 참가열의 또한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해마다 진행되고

있는 전국조선옷전시회는 성, 중앙기관과 각 도의 옷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공장, 기업소, 양복점, 기술자, 기능공, 가정부인 등 수백 명이 참가하여 1 000여 점의 옷가공품들을 전시하고 군중심의 와 전문가심사를 거쳐 우수한 단위와 개인들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 왔다.

지금까지 전시회 종합순위에서는 평양시와 평안북도가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조선옷전시회는 옷제품 전시뿐 아니라 옷본보기 출연, 기술 실무 강습, 경험 발표회 등 다양한 사업들로 진행되었다. 10여 차례 걸친 전국조선옷전시회를 통하여 명절 옷, 결혼식 옷, 일상 옷, 어린이 옷을 비롯한 민족 옷들이 용도와 계절, 나이에 맞게 그 특성이 살아나고 옷 형태의 다양화, 현대화 수준이 더욱 높아졌다.

특히 이번에 진행된 제 13차 전국조선옷전시회에는 전통적인 수법에

현대적인 수법을 배합하여 조선 치마 저고리의 중요한 구성 요소들인 색조화, 장식 등 그 예술적 형상 수준을 한계 단계로 끌어올린 제품들이 수많이 전시되었다.

각지 인민들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조선 옷전시회를 깊은 관심 속에 참관하는 것이 관례로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진행된 제 13차 전국조선옷전시회를 참관한 어느 한 나라의 옷전문가들은 나라마다 민족 옷이 있지만 민족 옷전시회를 이처럼 국가적인 범위에서 성대하게 진행하는 나라는 조선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도 조선 옷은 세상에서 최고이다라고 자기들의 심정을 펴려 하였다.

해마다 성대하게 진행되고 있는 전국조선옷전시회, 이는 앞으로도 민족의 사랑인 조선 옷을 발전시키고 널리 보급하며 옷차림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더욱 고수해나가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흥법식



금강산 옥류동의 가을

온돌의 좋은 점

온돌은 우리 민족의 독특한 난방 시설이다. 고대 시기부터 발생 발전해온 온돌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을 가지고 있다.

• 온돌은 멜감을 적게 쓰면서도 난방에 효과적

하여 추위를 잘 타는 늙은이들은 아래 목을, 혈

공기만이 있다.

• 온돌은 사람들의 병 치료에 좋은 점을 가지고 있다. 하루일을 마치고 저녁에 뜨뜻한 구들에 누우면 피곤이 쉽게 풀리고 신경통, 감기, 관절염과 같은 병 치료에도 효험이 있다.

본사기자

이다. 난방은 부엌에서 밥을 할 때 나는 열을 리용하기 때문에 멜감의 탕비가 없다.

• 온돌은 합리적인 난방 방법이다. 온돌은 아래 목은 덥고 옥목은 서늘

하여 추위를 잘 타는 늙은이들은 아래 목을, 혈

공기만이 있다.

• 온돌은 사람들의 병 치료에 좋은 점을 가지고 있다. 하루일을 마치고 저녁에 뜨뜻한 구들에 누우면 피곤이 쉽게 풀리고 신경통, 감기, 관절염과 같은 병 치료에도 효험이 있다.

본사기자

온식물의 기본 맛은 짠맛, 단맛, 신맛, 쓴맛, 감칠맛 등 5가지로 나눈다.

음식에 지나치게 신맛을 섞으면 짠맛이 약하게 느껴진다. 지나치게 신맛이 나면 단맛을 세계해주면 된다.

단맛은 짠맛이 약간 섞일 때 더 세여지며 고소한 맛도 짠맛을 섞어주면 더 세게 느껴진다. 이런 원리로부터 음식물의 맛을 잘 살리자면 간장을 쓸 것이 아니라 1%의 소금을 넣어야 제맛이 난다.

또 신맛이 지나칠 때

소금을 조금 넣으면 맛이 부드러워진다. 감칠맛이 나는 맛내기도 1%의 소금으로 간을 한 음식에 넣어야 감칠맛이 더 난다. 음식을 하면서 간장이나 소금을 넣고 간을 본 다음 또 넣고 간을 보는 식으로 음식물의 간을 여러 번 보지 말아야 한다.

본사기자

맛을 조절하는 몇 가지 방법

소금을

조금 넣으면 맛

장이나

소금을 넣고 간을 본 다음 또 넣고 간을 보는 식으로 음식물의 간을 여러 번 보지 말아야 한다.

본사기자

혹시 저 오르는 계단에

나를 시험하는 무엇이 있

을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 계단을 다 올라 아버지의 앞에 이르렀을 때 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버지! 어찌하여 저

를 그냥 들어오게 하시오

이까? 저에게 두 번째 시험을 치르게 해주시오이다.》

그러자 환웅은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다.

《두 번째 시험은 필요

없게 되었다. 너는 벌써

두 번째 시험을 충분히 치른 삼이니라.》

《예?!》

《저 산을 보아라.》

단군은 아버지의 손길이

가리키는 꽃을 보았다. 멀리 보이는 산은 아달산이

분명한데 그 옆의 좀 낮은 산은 붉은 빛으로만 보이

는 것이 어쩐지 이상하였다.

전에는 저렇게 붉은 빛이 아니었는데... 저 산이 언제 저렇게 붉디붉은

홍산으로 되었을까?....

《저 붉게 보이는 산이 바로 네가 무술 훈련을 한 그 산이다. 초목이 무성하던 청산이 풀 한포기 없이

시뻘건 흙만 드러난 홍산

으로 되었으니 부디 두 번째 시험을 치를 필요가 있겠느냐?》

아버지의 말을 듣고서

야 단군은 비로소 그 산이 바로 자기가 무술 훈련

으로 낫파 밤을 밝히며 세

월을 보내던 산임을 알 수 있었다.

《장하다! 이제는 네 어깨에 우리 박달족의 래일을 떠맡길 만 하다. 이제

부터 너는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무예와 출중한 지

력을 가지고 박달족의 앞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백

번 싸우면 백번 다 이기

는 명장이 될 때 박달족이

이 흥함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

이런 일이 있는 다음부

터 그 산은 홍산으로 불리우게 되었다. 단군의

말발굽과 창과 칼, 화살에 풀 한포기 둑지 않고

바위도 부서져 모래로 된

산, 주위의 푸른 산과는

대조적으로 붉게만 보이

는 이 산에 단군이 떠난

지 몇 년이 지나도록 풀이

전혀 둑지 못했고 그의

백발백중하는 화살과

창칼이 뭇집 승들의 세계

에도 알려진 듯 새들도 깃을 펴지 않고 짐승들도

보금자리를 틀지 않았다고 한다.

...5천여년의 장구한 세

월이 흐른 오늘 이 산은

푸른 숲이 무성하여 뜻새

들과 뭇집 승들의 아득한

보금자리로 되었지만 이

름만은 홍산 그대로 간

직하고 있어 우리 모두에게

민족의 원시조 단군에 대한 뜨거운 추억을 불러일

으키고 있다.

(끝)

홍산이야기 (5)

글 강덕부, 그림 김윤일

그러나 단군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아니, 돌아갈 수가 없었다. 말이 자기의 뜻대로 날개 달렸으나 제가 목표로 정한 그 츠령바위만은 훌쩍 뛰여 오르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집의 울타리보다 좀 더 높은 츠령바위 앞에서 날듯이 달리던 말도 주춤거리며 몇 번 헛几步 멎어서 군 하는 것이었다.

(아, 종시 이 츠령바위 우엔 오르지 못한단 말인가!)

일단 목표를 정한 이상 판찰하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기에 피하는 훈련은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훈련에 지친 몸을 좀 쉬우며 단군은 츠령바위 아래에서 말배띠를 손질하고 있었다. 차돌이는 츠령바위의 나무 그루터기에 기대여 앉아 있었다. 잠이 든 모양이였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단군이 열걸음 내달리면 스무 번, 서른 번을 내달려야 하는 차돌이였던 것이다.

배띠를 손질하고 말우에 올라 차돌이를 찾으려고 다시금 츠령바위를 쳐다보던 단군은 깜짝 놀랐

다. 커다란 곰이 잠든 차돌이에게로 다가들고 있었던 것이다. 순간 단지 해도 곰의 발통이 차돌의 머리를 깨여놓을 판이였다. 차돌이, 차돌이를 살려야 한다!

《차돌아!-》 단군은 말배기를 힘껏 들이차며 목청껏 소리쳤다.

차돌이, 차돌이를 살려야 한다. 귀전에서 바람소리가 아츠럽게 스쳐지나갔다. 곰의 발통이 차돌이의 머리를 내려치려는 찰나 그 앞에 이룬 단군은 말간등우에서 휘의 몸을 날리며 두발 끝에 힘을 모아 곰의 면상을 드세게 겪어쳤다. 다음은 주먹, 또 발길, 주먹... 차돌이가 잠에서 깨어 벌떡 일어났을 때는 곰이 벌써 쓰러져버린 뒤였다.

《아니?! 소장군!...》 차돌은 단군과 말, 쓰러져 있는 곰을 번갈아보더니 놀라서 소리쳤다.

《언제 여기로 올라왔소이까? 방금 전까지 저 아래에 있지 않았소이까?》

《응?!》 그제서야 단군은 자기와 말이 츠령바위 위에 올라와 서 있음을 깨달을 수

(해외동포 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522



단군은 말에 채찍을 가했다. 이제 눈앞에는 더 높아진 울타리가 나타날 것이다. 대문간에는 그의 무술을 시험할 무수한 장애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마침내 집 앞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 어찌된 일인가. 울타리는 예전 그대로이고 대문은 활짝 열려 있는 것이 아닌가. 문열

어머니는 높은 대우에 앉아 있었다. 단군은 그 아래에 끓어엎드렸다.

《아버지, 어머니! 소자가 돌아왔나이다.》

어머니의 눈에서는 벌써부터 눈물이 철철 흐르는데, 아버지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있었다. 아버지의 거친 음성이 다시 울렸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아버지의 말을 듣고서야 단군은 비로소 그 산이 바로 자기가 무술 훈련으로 낫파 밤을 밝히며 세

편집위원회